

월요광장



최유준
전남대 호남학과 교수

절기상 봄으로 접어드는 ‘우수’인데도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였던 지난 18일 저녁 모처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아벨 파르텃’의 현악사중주 연주회가 예정되어 있었다. 연주 시작 전, 예외 없이 마스크를 착용한 청중들이 방역 조치에 따라 자리를 띄어 앉은 객석의 풍경은 클래식 연주회장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와 함께 다소 가라앉은 듯 보였다. 그래도 감출 수 없는 무엇, 클래식 연주회 선택의 기회가 1년째 부족 줄어든 상황에서 어렵게 연주회장을 찾은 애호가들의 무대를 향한 기대감이 느껴졌다.

이윽고 무대 위에 악기를 들고 등장한 네 명의 연주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다행스러웠다. 어느 때부터인가 관현악 연주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연주자들의 모습에 익숙해지고야 말았지만, 안전을 위한 조치이기에 이해하면서도 연주자의 호흡이 어려울 것이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청중의 입장에서라도 집중이 쉽지 않았다. 그리고 보니 오늘은 사중주, ‘5인 이상 집합 금지’인 시대에 다행히도 네 사람이다. 음악회를 보며 이런 생각까지 하더니, 혼자서 쓴웃음을 짓다가 이내 모

현악사중주, 네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든 상황을 있고 이들의 연주에 빠져들었다. 모처럼 라이브로 듣는 실내악 연주라 더 그랬겠지만, 어떤 같증이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다.

이날의 현악사중주 연주가 해소해 준 그 ‘갈증’이란 무엇이었을까? 단순히 좋은 연주를 듣고 싶다는 ‘문화적 갈증’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어떤 농밀한 만남과 대화에 대한 갈증이랄까. 물론 모든 음악이 만남과 대화를 표상하지만, 현악사중주는 그 가운데서도 독특한 면모가 있다. 예컨대 대규모 관현악의 교향곡 연주는 연주자들 사이의 대화라기보다는 지휘자라는 대표자를 통해 청중에게 공표되는 집단 성명에 가깝다. 협주곡은 ‘콘체르토’(concerto)라는 원어의 뜻에 이미 담겨 있었이 영웅적 솔로 연주자와 관현악단 사이의 경쟁과 경합, 나아가 한 판 대결이다. 이미 일상 속에서 일방적 공표, 경쟁과 경합에 시달려온 터. 그와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대한 정각적 표상이 내게 필요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네 사람의 음악적 대화, 현악사중주가 그 정답이었다.

현악사중주는 서로 얽은 바이올린 족(族)의 세 가지 악기 네 대로 조합된, 즉 바이올린 두 대와 비올라·첼로의 합주 형태다. 이보다 악기 수가 많아지면 리더의 권위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며, 이보다 수가 적어지면 온전한 화음을 내기 어려워진다. 요컨대 현악사중주는 수평적 관계 맺기를 전제하는 최상의 연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수준 높은 현악 사중주단이 결성되기도, 유지되기도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다. 뛰어난 솔로 현악기 연주자 네 사람이 모인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현악 사중주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 파트

에 한 사람뿐이니 각자 솔로 연주자와 다른없는 최상의 연주 기량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나머지 세 연주자들의 소리를 예민하게 들으며 전체 화음을 조율해 낼 수 있어야 한다. 한데 이를 위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동료에 대한 배려와 인내심이다.

물론 어느 유명 현악사중주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마지막 사중주’에서 묘사되었듯이 같은 종류의 악기를 쓰는 두 바이올린 주자 사이에 위계적 관계가 만들어질 수는 있다. 좀 더 선율을 주도하기 마련인 파스트 바이올린에 무게가 실리는 문제다. 이런 낡은 갈등적 요소에 대응해 최근의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은 전체 앙상블의 색깔이 달라지는 것을 불사하고라도 파스트와 세컨드를 필요에 따라 교대로 맡곤 한다. 이날 금호아트홀의 연주에서도 아벨 파르텃은 1부와 2부에서 두 바이올린 주자가 파스트와 세컨드를 교대로 맡았고, 앙코르 연주 중에도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

이날 아벨 파르텃의 연주는 슈베르트의 단약장 현악 사중주 곡으로 시작했다. 빠른 템포의 카논 주제를 네 악기가 차례로 연주하는 도입부부터 계속된 네 악기의 대화는 연주회 끝까지 치열하면서도 세심하게 그리고 따뜻하게 이어졌다. (‘따뜻하게’와 관련해서는 이날의 연주회 제목이기도 했던 ‘안단테 칸타빌레’, 차이콥스키 현악사중주 1번의 느린 2악장을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 들어보시기를!) 이런 사운드의 합이 그저 반복되는 연주 연습만으로 이루어질 리 없다. 리허설과 일상의 경계에서 끝없는 대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네 사람이어서 다행이다.

꿈꾸는 2040

‘광주 예술 관광’ 예술 현장의 새로운 힘



이선
위민연구원 운영위원
이강하 미술관 학예실장

우리나라의 급격한 산업화는 지역의 특색을 없애고 문화를 획일화시키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잉태시켰다. 그것은 곧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 설계와 리모델링과 보존 사이의 문제,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의 도시 재생 방법까지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됐다. 또한 그러한 문제들은 지역에 몸담고 살아가는 주민의 삶까지 스며들었고, 신도시와 낙후된 도시의 간극으로 이어져 도시 활성화 정책 수립 및 개발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후 ‘문화적 도시재생’이나 ‘문화도시 전략’을 통해 도시계획 요소에 문화와 관광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도시의 관광 발전은 여행사나 관광객, 그리고 지자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삶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근 광주시는 ‘2021년 광주비엔날레, 광주 여행의

해’ ‘대한민국 예술 여행 대표 도시, 광주’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예술 여행 도시’를 만들기 위한 환경 조성에 시동을 건 것이다.

광주시가 문화 중심 도시로 조성되면서 양림동은 근대역사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고귀한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했다. 100년 전 선교사들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은 근대기 건축물과 기독교의 역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문화마을을 관광자원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지역에 흩어져있던 풍부한 인적·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 콘텐츠 연구 개발이 전문 문화 기획자들과 협업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더하고 있다. 광주 5개 구의 다양한 관광자원 중에서도 특히 남구 양림동은 이러한 역사와 예술이 복합된 스토리텔링이 담긴 공간이 많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

최근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성장한다는 취지의 ‘양림 미술관거리 조성 사업’과 ‘제1회 양림 골목 비엔날레’는 양림동 마을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예술가들과 문화 예술 관광 전문가들, 그리고 주민과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 가는 시민 축제로 주목을 받고 있다. 행사 개최를 통해 근대역사 문화마을 양림동은 예술 여행 도시 광주의 거점이자 안전하고 아름다운 마을로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이처럼 많은 이들의 관심 속에서 광주는 좀 더 나은 예술 관광의 입지를 다지고 있다. 지역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기획자, 예술가 그리고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의 기획자를 꿈꾸는 청년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역 도시 재생의 중요한 지점은 ‘도시 안에 있는 또 다른 도시’를 건설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사람들의 창의적인 실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이 생 성되어야 한다. 또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예술 활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행사와 축제, 교육에 생기를 불어넣는 게 필요하다. 예술가·창작자·기업·문화기획자 등이 젊은 세대들에게 삶의 방식이나 도시를 개척하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덕목이다.

지역의 예술과 관광 사업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나가는 것, 그리고 동시대를 살아가며 미래를 함께 관망하고 연대해 나가는 것, 우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만들어 내는 것 등이야말로 지역 상권을 살리고 문화·예술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광주 예술 관광’을 문화도시 광주의 새로운 대표 관광 브랜드로 개발하고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전략이 모색됐으면 한다.

기고

옹이와 너리, 지역사회와 소통을 꿈꾸다



이은선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바이흐로 캐릭터의 전성시대이다. 사실 몇 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리락쿠마나 쿠마몬, 피카츄 같은 캐릭터들이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뿐, 국내의 자체 캐릭터들이 이슈화된 적은 거의 없었다. 다만 2019년 탄생한 EBS의 펄스 캐릭터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한 캐릭터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18년부터 시작된 ‘우리 동네 최고의 캐릭터 스타 선발대회’, 우리 동네 캐림팩’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것을 보더라도, 무언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인 것이다. 이제 기업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캐릭터를 통해 특정 정책이나 이슈를 전달하려고 한다. 중요한 점은 캐릭터에 스토리가 담겼는지의 여부에 있을 것 같다. 이야기가 없는 단순한 캐릭터는 생존율이 낮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자기만의 이야기가 담긴 캐릭터’인 것이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는 2005년에 신설되어 지금껏 호남·제주 지역의 중요 문화 유적에 관한 학술 조사

및 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소의 가치 지향점은 올해 제정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 중 ‘마한 역사문화권’의 연구 조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산강 유역 마한 사회 연구에서 핵심 콘텐츠의 하나로 대형 옹관을 들 수 있다. 그동안 대형 옹관이 대거 출토된 나주 오랑동 요지와 대형 옹관을 주요 관(棺)으로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는 나주 북암리 3호분 및 정촌고분 등을 발굴·조사하였으며, 고대의 대형 옹관 제작 기술을 복원하는 핵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연구소는 이러한 조사와 연구 결과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나주 정촌고분 금동신발 만들기’(2015년)를 시작으로 올해에는 ‘고흥 아막고분 갑옷과 투구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체험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상 확장성이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했다. 장기간에 걸친 수많은 논의 끝에 ‘옹이’와 ‘너리’라는 새로운 캐릭터가 태어났고, 그 캐릭터에 마한의 이야기를 담아 보았다.

‘옹이’와 ‘너리’는 ‘옹관’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인데, 그 이름은 한자(옹관)의 앞 글자와 한글(독널)의 뒷글자를 따서 만들었다. 옹이·너리의 고향은 영산강 유역에 자리한 나주의 오랑동·북암리 일대이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가 발굴한 유적이 나주 오랑동 요지와 북암리 정촌고분이었는데, 두 유적은 영산강 유역

의 고대 마한 사회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곳이다. 특히 오랑동(五良洞)은 ‘다섯 가지가 좋은 동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옹관의 주요 재료인 물·불·흙·바람·나무가 좋아 양질의 대형 옹관을 생산할 수 있는 최적의 마을로 설정하였다. 또한 오랑동에서 대형 옹관을 만들게 된 배경, 대형 옹관이 무덤으로 사용된 과정, 영산강 냇길을 이용하여 옹관이 전파되는 사실을 스토리텔링하였다. 옹이·너리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적·고고학적 사실과는 별개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의 정체성과 대형 옹관이 갖는 다양한 의미들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국립 나주문화재연구소의 ‘캐릭터-스토리’ 프로젝트는 이제 첫걸음을 떤 아이와 같다. 연구소의 가치 지향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옹관에 대해 누구보다 애착이 있는 연구원들이 자체 제작하였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겠지만, 캐릭터 산업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보완해야 할 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애초에 완벽한 스토리를 지닌 캐릭터는 없을 것이며, 우리 연구소에서도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캐릭터를 완성해 가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옹이와 너리는 앞으로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소에서는 옹이와 너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더욱 친근하게 마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옹관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여러분들도 옹이와 너리를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를 나눠 주시기 바란다.

社說

국정원에서 호남 단체장까지 사찰했다니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호남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불법 사찰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국정원은 또 사찰에만 그치지 않고 국정 운영에 비협조적인 지자체에는 재정상 불이익을 주도할 목적으로 드러났다.

정당 배진교 의원은 엇그제 자신의 인턴 남동구청장 시절 사찰 관련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해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이명박 정부 4년차인 2011년 9월 15일 작성된 ‘아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이다.

이에 따르면 사찰 대상은 광역 지자체장과 8명과 기초 지자체장 23명이었다. 여기에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남도지사였던 김두관 국회의원, 인천시장이었던 송영길 국회의원 등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와 당권 주자들도 포함됐다. 호남권에서는 강은태 전 광주시장과 최영호 전 남구청장,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박병준 전 고흥군수, 강안목

전 임실군수가 사찰 대상이었다.

당시 국정원은 아권 단체장들이 “국익과 지역 발전보다는 당리당략 이념을 우선시하며 국정 기조에 역행하고 있다”거나 “4대강 사업 저지를 정부 정책 흔들기의 핵심 방편으로 삼고 있다”며 이들의 행보 차단을 위한 계획을 각 정부 부처에 할당하기도 했다. 특히 행정안전부에는 교부세 감소와 지방채 발행 중단 등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동안 의혹으로만 떠돌던 이명박 정부 당시 호남 지역 단체장들에 대한 사찰 문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게다가 2011년 말 당시 이명박 정부의 광주·전남 공약 이행률이 극히 저조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찰 결과가 ‘호남 차별’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국정원의 사찰은 국회의원과 문화계 인사 등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제 여야는 불법 사찰을 정쟁의 수단으로만 삼을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 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광주역 일대 화려한 부활 꿈꾼다

광주시가 그린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대상지로 광주역을 선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의 그린스타트업 타운 공모에 재도전한다. 이는 침체된 광주역 일대의 화려한 부활을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첫 도전에서는 천안역에 밀려 실패한 바 있다.

중기부는 따르면 오는 3월 벤처·스타트업 육성 거점으로 추진하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사업 예비 공모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공모 참여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준비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그린 스타트업 타운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공모에서도 불거진 문제다. 다만 광주시는 최근 코래일로부터 부지 매각 동의를 확보했다고 한다.

시는 이번 공모에 성공하면 오는 2023년까지 국비 등 500여 억 원을 투입해 도

시재생 혁신지구인 광주역 일대 1만 3000여㎡ 규모에 그린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창업·혁신기업을 유치하고 비즈니스·주거·문화·복지 등을 결합한 복합타운을 조성함으로써 창업기업의 요람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데 이를 위해서는 시의회의 동기가 필요하다. 가장 큰 걸림돌인 부지 확보 문제는 코래일의 매각 동의를 받아 해결했다고는 하지만 200억 원 안팎으로 예상되는 부지 매입비의 경우 타운 조성 사업 투자비와 별개로 전액 시비를 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는 의회 동의를 바기 위한 노력과 함께 치밀한 준비로 이 사업을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광역 일대를 스타트업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게 되면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로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3개월 후면 5·18광주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는다. 아프고 힘든시절이었지만 불혹의 세월을 보내면서 가슴속 상처가 아물었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보다. 요즘 미안마에서 진행되는 ‘군부 쿠데타 반대’ 시위 소식을 접하면서 80년 5월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던 전두환과 군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민주화를 갈구하는 때는 목마름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은 희미해졌지만 가슴만은 5월의 참상을 여전히 잊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시민들이 몸 여겨저거에 고무탄이나 새총을 맞고 피를 흘리는 사진이나, 지난 9일 수도 네티드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에 나섰다가 머리에 경찰의 실탄 사격을 받은 20세 여성이 뇌사 상태에 빠져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도 80년 5월 광주의 참혹한 현장 사진과 꼭 닮았다. 미안마 최대 도시 양곤에 육근 77정보병사단이 투입된 시 역시 80년 당시 광주에 ‘잔인무도한’ 공수부대가 투입됐던 상황을 곧바로 떠올리게 한다.

쿠데타 데자뷔

실제로 요즘 미안마 군경이 시위대에 고무탄과 새총을 쏘고 곤봉 세례를 퍼붓는 모습을 담은 인터넷 동영상 을 보면 80년 5월 광주와 거의 다르지 않는 느낌이 든다. 특히, 미안마 제2의 도시 만달레이에서 1000여 명의 시위대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사복 군인이 고무탄 총으로 추정되는 장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거나 시위대가 숨은 건물로 따라 들어가 발표하는 모습 그리고 투항해 건물 밖으로 나오는 시위대에게 곤봉을 무자비하게 휘두르는 만행 등은 ‘이미 어디선가 본 듯한’ 데자뷔를 느끼게 한다.

군부가 총칼을 겨누고 있던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미안마 시위대는 41년 전 광주 시민이 갖지 못했던 강력한 원군을 확보하고 있다. 유린되고 있는 인권과 군부의 만행을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외부 세계에 알림으로써 세계 곳곳의 민주 세력으로부터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다.

우리 광주도 5·18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많은 외국인의 도움을 받았다. 비록 현장으로 달려가지는 못하지만 민주화의 횃불을 지켜준 미안마 국민에게 굳건한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홍학기 정치부장 redplane@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 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